

† 찬미예수님

바로 사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차례 전도 여행에서 칭송과 존경보다는 반대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의 전부로 여길 만큼 복음의 기쁨 속에 살았기에 역경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바로 사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2017년 8월 30일 연중 제 22주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그때에 2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2017년 8월 다섯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주보나눔 봉사(8/27 주일)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생미사 봉헌 (8/24 목)

목요일 저녁미사에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생미사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미사와 친교의 시간에 참석해 신부님 영명축일을 함께 축하해주신 윤주현, 박수현, 이은진, 김정호, 류은정, 홍상미, 김광찬, 장익, 김현경, 문지영, 전진영 자매/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빈첸시오 무료급식 저녁 봉사 (8/24 목)

빈첸시오 무료급식 봉사가 목요일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김정호, 전진영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세례식 (8/27 주일)

8월 27일 교중미사 중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모니 멤버였던 이상훈 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현 하모니 윤주현 릿따 자매님이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하모니에서 카드와 성물 선물을 드리며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두분의 기쁜날을 함께 했습니다. 세례와 첫 영성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어미사 (8/27 주일)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여섯번째 영어 미사가 지난 주일 4시에 있었습니다. 참여와 준비에 수고한 하모니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어권 신자분들과의 교류/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매달 준비되는 영어미사가 아직은 기반 초기 단계입니다. 익숙치 않은 미사와 오후 시간대라 선뜻 참여가 어려울지라도, 보다 큰 뜻을 이루기위해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보나눔 봉사(9/3 주일)

박수현 프란치스코 형제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성체 조배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9월 1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9월 2일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물방 신간 도서 신청

신간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물방으로 9/3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사랑방에 비치할 영적도서/교육자료 신청은 밑 '리마인더'란의 링크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9/10)

9/10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지못한 분들, 또는 다시한번 기초를 다지고 싶은 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를 다시한번 다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9월 중순 시작)

9월 중순에 시작될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가름침대로 살기위해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할 말씀입니다. 성서모임을 통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생활안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계 수련회: 9/15금 - 9/17일

하모니, 뜨락회 청년회의 친목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2박 3일 레이크 타호 하계 수련회가 9/15 부터 9/17까지 있습니다. 곧 차편성과 기타 일정이 확정되는 되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학교 교사모집

초급반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정인경 가브리엘라 자매님 (ikkim324@yahoo.com)께 문의 바랍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관심 영적자료 구입***: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마련해 사랑방에 비치하고 공유하며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영적 교육자료 제목을 회장단에게 알려주거나 링크(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1c7wrs_yYBI8-pLCPlchh74/edit?usp=sharing) 에 올려주세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ea2T3f9B3UcO>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